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바라보기’에 내재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작업 연구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학과 조소전공

김기주

‘바라보기’에 내재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작업 연구

지도교수 권 대 훈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학과 조소전공
김 기 주

김기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7월

위 원 장	<u>오 귀 원</u>	(인)
부위원장	<u>이 용 덕</u>	(인)
위 원	<u>이 중 건</u>	(인)

국문초록

<‘바라보기’에 내재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작업 연구>

김기주

어떤 특정 개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회적 배경,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내고 있는 겉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본인은 개체가 놓여진 사회적 배경을 ‘외적 요인’,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를 ‘내면’, 그리고 표면으로 드러난 것을 ‘막’이라는 용어로 상정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인지하고 개체들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본 연구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인지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돌을 바라보는 방법(2016)’에서 돌이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에 집중해보고자 했고, ‘멀리서 봐야 하는 것(2016)’과 ‘기하학적 사물 바라보기 시리즈(2017)’을 통해 개체에게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흐리게 만들어 봤다. 이 작업들을 통해 본인은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적용시켰다.

본인은 ‘바라보는 행위’를 위한 대상으로서 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를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 사진을 겹치는 시도를 했다. 다양한 배경에서 같은 개체들을 겹치는 방식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을 흐리게 만들었고 오직 개체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뚜렷하게 만들었다. 개체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내면을 타인이 과연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질문은 역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온전히 이해하고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을 내릴 수 있었다. 이에 ‘로드뷰 드로잉(2017)’ ‘8.88m’(2018)’을 진행했다. 이 두 가지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은 본인의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를 생각했다.

결론은 어떤 하나의 개체를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개체가 스스로의 내면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이 어렵고, 설령 그것을 완전히 안다고 할지라도 모두를 드러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개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개체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일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흥미를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주요어 : 개체, 바라보기, 외적 요인, 내면, 막

학번 : 2016-21328

목 차

국문초록

들어가며..... p.1

세 가지 요소의 철학적 근거..... p.3

세 가지 요소로의 초기 접근과정..... p.7

- 1) 돌을 바라보는 방법
- 2) 멀리서 보아야 하는 것
- 3) 기하학적 사물 바라보기 시리즈

‘바라보기’에 적용된 세 가지 요소..... p.15

- 1) 사람o 바라보기 시리즈
- 2) 로드뷰 드로잉
- 3) $8.88m^2$ – 표피와 진피, 두 가지 루틴

마치며..... p.25

Abstract..... p.27

작품목록

참고문헌

들어가며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이 결정할 수 없는 요소들을 지닌다. 특히 사람의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국적, 부모, 경제적 상황, 이름 등을 부여 받는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미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하나의 틀이다. 하나의 개체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 이와 같은 사회적 요소들을 본 논문에서는 ‘외적 요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개체들은 그 와중에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다. 자아에 대해 고민하며 정체성을 바로 잡으려 하고 자아실현을 꿈꾸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의 규범과 시선에 눌려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최소화시키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개체에게 자신만의 이야기가 형성되는데 이는 ‘내면’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사회에 의해 부여되는 ‘외적 요인’과 주체성이 강한 ‘내면’ 사이에는 간극이 형성되면서 이는 일종의 경계가 된다. 사회가 구축하고 있는 규범, 외부의 시선, 통념 등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개체들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구나 감정을 이 경계 뒤에 위치시킨다. 본인은 이 경계를 내면을 숨기는 하나의 ‘막’이라고 상정했다. 제3자가 파악할 수 있는 한 개체의 모든 걸모습들은 모두 이 ‘막’에 해당된다.

본인은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외적 요인’, ‘내면’, ‘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려고 한다. ‘외적 요인’과 ‘내면’은 끊임없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막’을 형성해 나간다.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땐 ‘내면’이 한없이 작아지고, ‘내면’에 집중하게 될 땐 ‘외적 요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 두 개념의 관계는 끊임없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사회 속에서 개체가 차지하게 되는 영역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영역은 표면적으로 그 개체가 사회현상 속에서 실재하는 부분으로 인식된다.

본 논문에서 본인은 개체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 자주 언급되게 될 ‘바라보기’는 ‘외적 요인’, ‘내면’ 그리고 ‘막’,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관찰이다.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외적 요인’을 흐리게 지워보기도 하고, 때로는 겉모습 그대로의 ‘막’에 집중해보기도 한다. 본 논문에 등장하게 될 본인의 작업들은 방법론을 달리한 ‘바라보는 행위의 실천’들이다.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철학적 근거

‘하나의 개체는 연속 선상에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조적인 요소로 자리하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개념은 ‘구조주의 철학’¹에 있어 매우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머그잔을 예로 들어보자. 머그잔(mug 盞)이란 식기 중의 하나로 손잡이가 있는 통 모양의 큰 컵이다. 뜨거운 우유나 커피를 마시는 데 많이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커피 컵보다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아래가 막혀있고 움푹하고 깊숙한 그릇의 형상이다. 흙으로 빚은 도자기가 주 재료며 경우에 따라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도 만들어진다.(출처: 두산 동아 백과)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하나의 머그잔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사회가 만들어놓은 머그잔의 개념이다. 머그잔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이 개념들에 종속된다. 다시 말해 그 물체는 이 사회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머그잔’ 또는 ‘컵’이라는 것 이외에 다르게 설명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대학생 20대 여성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본다. 그녀에게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주어졌고, 중산층이라는 경제적 환경이 부여되었으며, 여성이라는 성별이 정해졌다. 이처럼 구조주의는 인간과 사회생활을 수학적 작용과 기호와 자연적 물질, 제도와 체계로써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는 본인이 말하는 ‘외적 요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개체는 절대로 그 사회적 구조

¹ 어떤 사물의 의미는 개별로서가 아니라 전체 체계 안에서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개인의 행위나 인식 등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총체적인 구조와 체계에 대한 탐구를 지향한 현대 철학 사상의 한 경향이다.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매우 폭넓은 지적 분야를 포괄하는 이론으로 언어학, 인류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미학과 정치이론 등의 발달에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곧 구조주의는 단순히 철학의 한 유파라기보다는 하나의 세계관이자 그로부터 비롯된 학문적 방법론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의 내용들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것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구조주의 개념과는 반대로 20세기 초반에는 인간중심의 실존주의 철학²이 등장했다. 이 철학은 인간의 의식과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고 인간 스스로를 오직 하나 뿐인 주관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 철학은 인간의 일반적인 본질보다는 개개의 인간의 실존, 다른 사람과 대치할 수 없는 자신의 독자적 특성을 강조했다. 때문에 보편적 사실을 부정하고 개인의 주체성이 진리라고 추구한다. 내면을 중시하고 명상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 사회나 환경, 타인이 주는 영향들을 배제한다.

앞서 예시로 제시된 20대 대한민국 대학생 여성은 주어진 요건으로 보편성을 가지는 동시에 자신만의 주체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꿈이나 이상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가다듬을 것이다. 이는 사회가 이 여성에게 주입한 것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탐구하고 결정한 것들이며 그 누구와도 결코 동일할 수 없는 독자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 독자성은 이 여성만의 ‘내면’을 구축한다.

그러나 사회를 살아가는 개체는 구조주의와 실존주의, 이 두 극단적인 이론들 중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구조주의 이념은 과학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종교, 역사 등을 경시했고,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외적인 부분들과의 관계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

² 실존주의란 인간 존재와 인간적 현실의 의미를 그 구체적인 모습에서 다시 파악하고자 하는 사상 운동이며,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넓은 의미에서든 후설의 의미에서든 현상학을 방법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실존이지 이성이라든가 인간성과 같은 보편적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 사상운동은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예술 등의 영역에 걸쳐 있다.

다. 이 사실들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후기구조주의 사상³이 나왔다. 인간의 내면을 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저마다 다른 내면을 개개인이 갖고 있어 단순히 여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설정해 놓은 ‘외적 요인’, ‘내면’, 그리고 그사이에 존재하는 ‘막’이라는 개념은 후기구조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 은 일찍이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를 언급하면서 정신분석에 있어서의 인식을 세 영역으로 정리했다.⁴ 먼저, 상상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구별되는 개인의 주체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라캉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개인의 상상계의 인식을 통해 받아들여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상징계는 상상계와 대립되어 존재하는 사회의 영역이다. 언어, 법 등 한 개인이 쉽게 바꿀 수 없는 현실들이 이 상징계에 속한다. 상징계는 언뜻 보기에 상상계와 대립을 이루는 듯 하나 사실 일방적인 억압관계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 억압된 개인의 영역은 어떤 각성의 태도를 갖게 되는 순간을 갖게 되는데, 이를 라캉은 실재계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라캉이 정리한 이 세 가지 개념은 본인이 개체를 바라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세 가지 요소에 근접해있다.

본인이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러한 철학적, 정신분석학적 부

³ 구조의 역사성과 상대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구조를 선형적이고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던 초기 구조주의와는 대립한다. 기존의 구조주의에 인간의 이성이 개입되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수학적 공식처럼 단순하게 대입되는 형식과는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⁴ 라캉은 정신분석학의 선구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제자로 프로이트의 이론을 이어나가면서 일부 보충, 재정리 하는 태도를 취했다. 프로이트가 자아, 이드(에너지의 근원이자 충동의 저장고), 초자아의 개념을 내세웠는데, 이 개념을 라캉은 상상계, 실재계, 상징계라는 언어로 재정리하였다.

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언급하는 세 가지 요소(외적 요인, 내면, 막)의 개념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동시에 본인이 ‘바라보기’ 행위를 할 때 본인이 어느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진행하였는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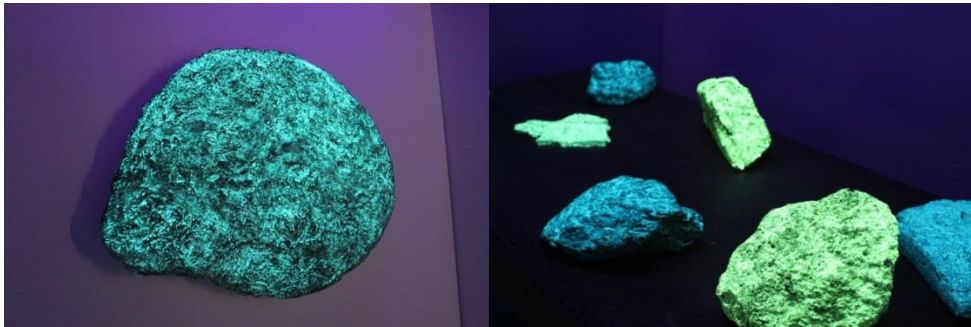
세 가지 요소로의 초기 접근 과정

개체를 세 가지 요소로 규정하여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의 작업들은 어렵
풋하게 느껴지는 이 요소들을 하나씩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가장
주를 이루었던 것은 관심이 가는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의 이야기를 본인의 방식
대로 전시장에 가지고 오는 일이었다.

1) 돌을 바라보는 방법(2016)

개체를 외부환경과 분리해서 바라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 발단은 ‘돌을 바라보
는 방법(2016)’을 진행하면서부터였다. 본인이 주목했던 ‘돌’은 재료로서의 돌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로서의 ‘돌’이었다.

일찍이 돌이라는 것은 멀리 여행을 거쳐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바위가 풍화,
침식 작용을 통해 작게 쪼개지고 돌에서 자갈로, 모래에서 흙으로 바뀐다. 때로
는 그 흙이 퇴적작용을 통해 돌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본인은 돌이 많은 이야
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돌멩이’라는 사물 자체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인상은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찮음’이다. 본인은 그 하찮은 표면에 내포
되어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에 주목하고자 했다. 현대의 과학 기술로는 돌의 표
면, 지질학적 분석에 의하여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돌이
겪어온 일들을 알 수 없다. 때문에 본인은 돌이 겪어온 이야기를 이미지로써 보
여주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았다.



<작품1> <돌을 바라보는 방법>, 석고, 돌, 야광안료, 가변설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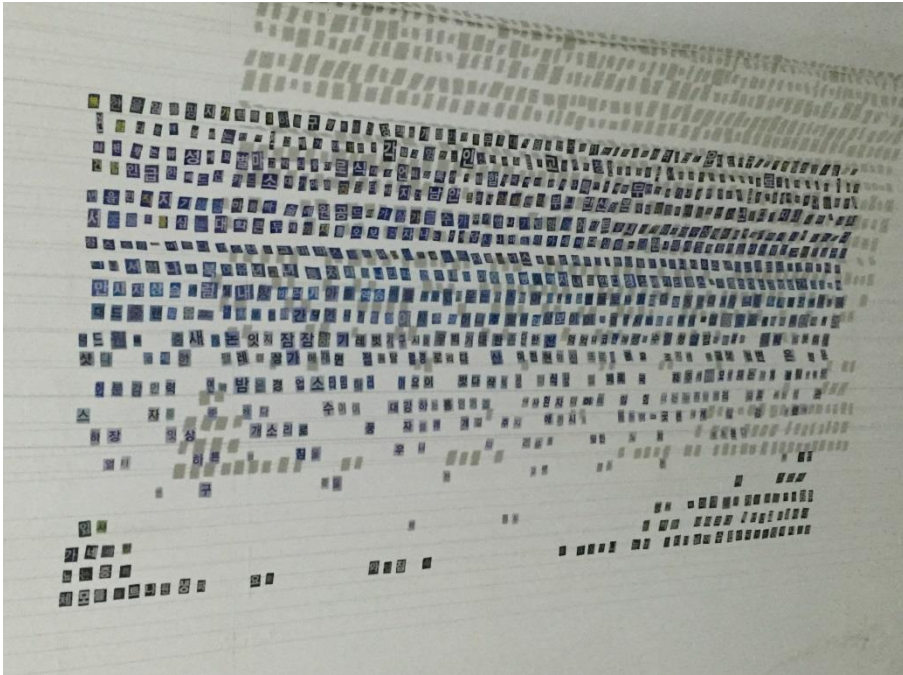
처음으로 했던 시도는 돌의 표면에 집중하는 일이었다. 매우 불규칙적이고 거친 돌의 표면에 가장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을 것을 생각하며 진행했다. 돌의 표면을 평평한 유토 위에 찍어내고, 그 찍은 자국에 석고를 부어 입체의 특성을 가진 돌의 표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작품1>. 그러나 이 작업의 결과물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돌이 가지고 있는 개성 중의 하나인 입체적 특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했던 시도는 주워온 돌의 표면에 야광안료를 바르는 것이었다. 돌에 발라진 야광안료가 어두운 전시장에서 빛나면서 표면을 노출 시켰고 동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모양을 보여주었다. 돌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시각적 강조를 통해 돌의 표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들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자 했다.

돌에 표면의 이야기들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생성된 기록들이다. 다시 말해 돌은 위치해있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기록들이 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이 본인이 무의식 중에 이 돌들을 가지고 온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본인 또한 외적 요인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요구되는 틀에 맞춰가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돌에 동질감을 느꼈다.

1) 멀리서 보아야 하는 것(2016)

‘돌을 바라보는 방법’에서 주목했던 돌의 표면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 생긴 내용들이었다. 이에 본인은 개체에게 영향을 주는 무언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외적 요인들로부터 개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게 되었다. 이에 본인은 2015년에 진행했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작업’ <참고자료1>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참고자료1>< O.L.H-스 /-newspaper>, 신문지, 낚시 줄, 1800*1220, 2015

사람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텍스트들을 접하며 살아간다. 매일같이 읽는 신문 기사나, 각 종 전공서적, 인기 있는 자기계발서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살아가지만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쉽게 무시할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의 핵심이 적혀있는 경전에 의해 전파된 것이고, 여러 정치적 사상들도 그것이 적힌 책이 출판되면서부터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진 새로운 가치관에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는 문자(Text)였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던 도중 본인이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문자를 물리적으로 분해하는 일이었다. <오노하스케-newspaper>(2015)는 신문지에 실린 문자들을 색깔 별로 모아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었다.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다는 사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실을 선별하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성을 갖게 만든다. 때문에 본인은 선별적으로 사용된 문자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어떤 이미지로서 보이게 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텍스트의 힘을 제거하는 작업’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작품2> 책을 찢어 산의 능선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이어 붙였다. 찢겨진 텍스트들은 가까이에서 봐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산의 능선이 그렇듯이 멀리서 한눈에 전체를 봐야 하는 이미지로 전환된다.

개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나 억압처럼 느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멀리서 흐리게 보았을 때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했다. 본인에게는 우리에게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들이 그렇게 느껴졌고 이를 흐리게 보기 위해 책을 찢고 이어 붙여 마치 멀리서 본 산의 능선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다.



<작품2><멀리서 보아야 하는 것>, 책, 가변설치, 2016

기하학적 사물 바라보기 시리즈 (2017)

‘돌을 바라보는 방법’(2016)을 통해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개체에 대한 인식을 시작했고, ‘멀리서 보아야 하는 것’(2016)을 통해 외적 요인을 흐리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어떤 사물의 외적 요인, 배경을 지우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했다.



<참고자료2> 르네 마그리트, <꿈의 열쇠>, 캔버스에 유채, 81*60(cm), 1930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⁵의 1930년도 작업 ‘꿈의 열쇠’를 보면 6개의 틀이 하나로 통합된 액자 속에 6개의 각기 다른 그림과 그 아래로 6개의 해설 단어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재현된 이미지와 그 밑에 달린 프랑스 단어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계란-아카시아, 검은 여성화-달, 중절모-눈(雪), 촛불-천장, 유리컵-폭풍, 망치-사막). 마그리트는 언어의 불완전성에 대해 언급하며 언제든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기호로서 존재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로 번역하는 일들을 진행했다. 사물을 일상적인 체계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신이 만들어낸 체계에 속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특정 용도와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물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특정한 사회적 함의를 갖는다. 본인은 그 과정이 전적으로 그 사물이 위치한 사회적 배경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고, 그 배경을 지워보고자 했다. 르네 마그리트가 불완전한 언어로서 존재하는 함의들을 다른 것들로 치환했다면, 본인이 함의 자체를 지워보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길거리 곳곳에 위치해 있는 같은 모양과 용도의 다른 사물들을 사진 찍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겹쳤다. 사진이 겹쳐지는 과정을 통해 서로 각기 다른 배경들은 흐리게 되었지만, 고정된 하나의 위치에서 겹쳐지는 사물들은 배경과의 대비효과로 점차 뚜렷해졌다. 배경이 지워진 상태에서 뚜렷해진 사물은 환경이 정해놓은 함의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⁵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예기치 않은 공간에 나란히 두거나 크기를 왜곡시키고 논리를 뒤집어 이미지의 반란을 일으켰다. 장난기 가득하고 기발한 상상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관습적인 사고의 일탈을 유도한다.



<작품3>(위) <교차된 빨간 원기둥>, C프린트, 841*594(mm), 2017

(아래) <위가 넓은 검은 원기둥>, C프린트, 594*841(mm), 2017

‘바라보기’에 적용된 세 가지 요소

돌을 바라보다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들을 없애보기 위해 책을 찢고 사물의 배경을 흐리게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 개체들은 결코 환경으로부터 분리가 된다고 해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외적 요인’, ‘내면’, ‘막’은 언제나 같이 존재하면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들이 존재해야 개체 또한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라보기의 행위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안 이 후부터 본인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사람○ 바라보기 시리즈 (2017)

사물을 찍는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본인은 피사체를 사람으로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다. 사람에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이 존재하기에 위의 세 가지 개념을 적용시키기에 더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사람○ 바라보기 시리즈’(2017)에서 사진을 겹쳐서 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프로세스는 앞서 다룬 ‘기하학적 사물 바라보기 시리즈’(2017)와 동일하지만 그 목적성이 다르다. 사물의 배경을 지우는 행위가 단순히 외부환경을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개체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이었다면, 사람의 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행위는 개체 그 자체를 더욱 주목하기 위함이었다. 다음은 사람의 세 가지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사진 작업과 더불어 진행되었던 인터뷰 내용이다.

사람A는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 남성이다. 사람에 관심이 많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취업 때문에 졸업을 미루고 조치원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집안의 눈치가 보여 겉으로는 바쁘게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는 볼링, 사진 등 자신의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는 자신의 현재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B는 30대 초반의 자영업자 남성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황금빛 미래를 꿈꾸기보단 눈 앞에 놓여진 일에만 집중했다.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일을 해야 했지만 지방에 있는 가족을 등지고 혼자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 일을 시작한지 8년이 넘은 지금은 사업의 규모가 커져 여러 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한다. 그는 사무실 주변에 생겼다 금방 없어지는 가게들을 보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즐긴다고 말한다.

사람C는 60대 중반의 자영업자 남성이다. 동료의 사고사, IMF, 세월호 사건 등을 겪고 사업이 크게 휘청거렸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았다. 지금은 젊은 사업가들에게 밀려 일이 많지 않아 한가로운 그는 인생의 회로 애락을 다 느껴본 것 같아 이번 삶이 제법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사람D는 60대 초반의 퇴직 여성이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녀는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결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있다. 직장생활과 더불어 시집살이까지 해서 늦잠을 자본 기억이 없는 그녀의 소원은 2박3일간 무인도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다. 두 명의 자식을 둔 그녀는 젊은 시절 왜 그리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자식들에게는 여유롭게 살라고 말한다고 한다.



<작품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람A, 사람B, 사람C, 사람D,

종이에 인화 후 디아섹, 2017

본인은 이 작업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현재상황을 이야기하며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취업을 하지 못해 보이는 부모님의 눈치가 아무렇지 않다는 사람, 사업이 언제 하락세를 보일지 몰라 전전긍긍하지만 보여지는 인생에 더 집중하려 하는 사람 모두가 어느 한 편에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 속에는 지워진 배경과 겹쳐진 사람의 모습, 인터뷰 내용들 모두 ‘내면’을 알기 위한 단서일 뿐, 겉모습인 ‘막’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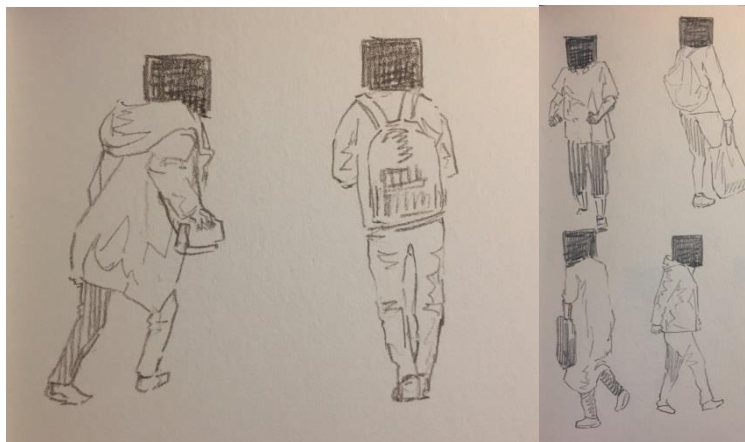
사람을 찍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이 과정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진실된 ‘내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외적 요인들과 겉모습인 막은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내면을 겉으로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가 아닐 것이다.

로드 뷰 드로잉(2017)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다른 형식으로 진행할 방법을 고민했다. 구글(Google)이나 네이버와 같은 웹사이트에서는 지도의 기능을 더욱 활용도 높게 만들기 위해 로드 뷰 기능을 개발했다. 지도에서 로드 뷰 버튼을 누르고 장소를 클릭하면 해당 장소의 모습을 360도로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인은 모르는 길을 산책 또는 여행하기 시작했고 그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을 드로잉 하기로 했다.

본인은 초등학생 때 처음 미술을 시작했고 초등학생 때 미술학원을 처음 다니기 시작했고 중3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도 예고를 다녔고 대학도 당연히 미대를 갔다. 그런 본인에게 미술을 하지 않는 공간은 신비한 곳이었고 그 곳에서 모르던 사람들과의 소통방식은 그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었다. 대학에 들어와 처음 가입했던 태권도부에서도 그랬고 2학년을 마치고 입대했을 때에도 본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은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애,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를 그려줄 수 있는 사람 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애인을 대신 그려주기도 했고 심심한 선임의 얼굴을 그려주기도 했다. 난생 처음

5만원을 들고 홀로 떠난 여행에서는 처음 뵈는 카페 사장님을 그려드리고 커피와 빵을 얻어먹기도 했다. 먼저 상대방과의 접점을 찾는 것에 서투른 본인이 누군가에게 먼저 접근할 때 '그림을 그리는 일'은 좋은 관심거리였고, 이는 유일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었다.



<작품5> (위) 로드뷰 드로잉, 단채널 영상, 2018

(아래) 로드뷰 드로잉, 스케치북에 드로잉, 가변설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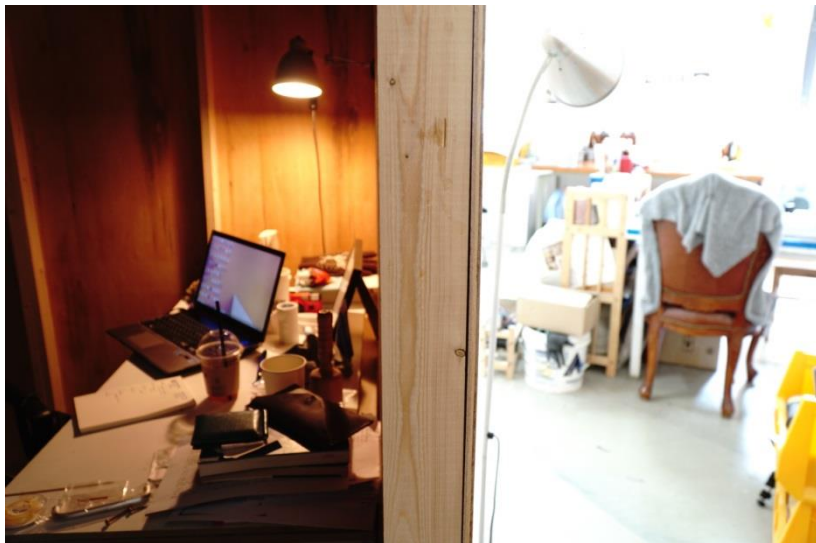
때문에 모르는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을 그리는 일은 본인이 느끼는 ‘사람을 바라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했다. 로드 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본인만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본인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바라보기’ 방법이 었다.

8.88m² – 표피와 진피 (2018)

앞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개체들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이번엔 사물 또는 타자를 바라보기보다 본인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관점에 더 집중해보고자 했다. 본인은 여태껏 감추어 왔던 스스로의 내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을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려보고 싶었다. 본인의 내면과 외부환경, 그리고 그것들을 가시화시키는 물리적 이미지들을 만들고 아카이브하는 형식을 취했다.

‘외적 요인’, ‘내면’, ‘막’의 개념을 제 3자가 아닌 본인에게 적용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물리적 이미지로 구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조소과 대학원생 한 명에게 제공되는 일정한 크기(약 8.88m²)의 공간에 일종의 ‘막’을 설치했다. 길으로 보여지는 외면은 깔끔하게 처리된 고급 합판의 표면이다. 그 표면에는 주변 자리를 쓰는 사람들이 주는 영향(나사자국, 페인트가 튼 얼룩 등)들이 맺힌다. 안쪽 내부 면에는 지저분한 구조와 작가가 그 안에서 한 학기 동안 생활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사회적 환경 속에 위치한 철저히 사적인 공간 안에서 본인은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었다.

본인은 이 공간에서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로 했다. 사실 프로젝트라기 보단 매일같이 이 공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고정적인 루틴을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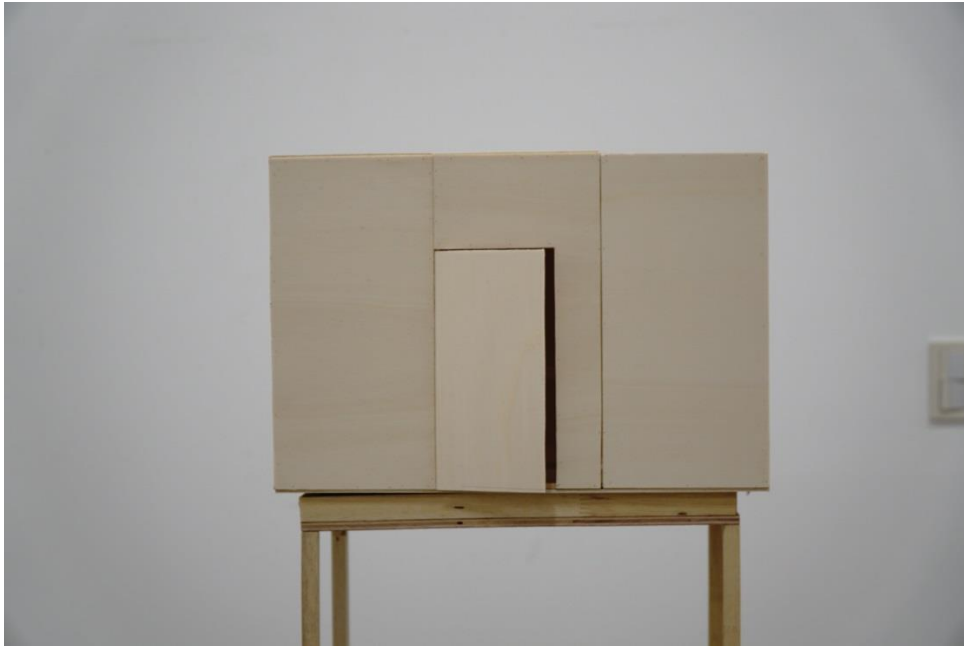


<작품6> 8.88m², 나무합판, 각목, 2400*3700*2440(mm), 2018

그 중 첫 번째는 매일 같이 학교에 나와 공간으로 들어갈 때 점토를 한 줍씩 떼어서 들어가는 일이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항상 만져왔던 흙이고 가장 익숙한 재료였다. 그저 만지는 것이 즐거웠던 이 재료는 어느 순간 본인에게 무엇인가를 만들고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재료로 바뀌었다. 표면을 정리하거나 어떤 질감을 만들기 위해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다듬는 행위를 해야 했다. 흙을 가지고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을 하며 주무르고 만지는 일을 했다. 그리고 생각이 끝나면 표면에 그 날의 날짜를 새기고 하나씩 굳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 줍의 흙덩이가 어떻게 정리되고 어떤 형상을 갖게 되는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다. 그저 그 날의 흙덩이인 것이다.

두 번째 루틴은 그 공간에서 있으면서 발생하는 외부의 일들을 기록하는 일이었다. 종종 공간에 혼자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상황, 공간의 표피인 나무 합판에 가해지는 크고 작은 충격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본인은 이 감각들을 그때그때 메모장에 기록하는 일을 진행했다.

이 두 가지 작은 루틴들을 행하면서 이 작은 공간은 본인과 동질화 또는 동기화 되어갔다. 이렇게 잠시 커진 본인을 느끼다가 문득 이 모습을 거시적인 시점에서 축소된 본인을 관찰해보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실제 사이즈의 8분의 1 크기의 축소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실제 나무 합판과 같은 재질의 나무로 벽을 짜고, 실제 공간의 사진을 OHP필름에 인화하여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제작했다. 축소된 모형을 보면서 하루의 루틴을 상상하면 본인 스스로를 타인처럼 바라보는 일이 가능해졌다.



<작품> '공간 미니어쳐 (위)', '흙 주무르기 루틴(아래 왼쪽)', '일상 기록(아래 오른쪽)',
가변설치, 2018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공간 안에서 진행되었던 작은 일들을 밖으로 어떻게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이 생겼다. 전시장으로 가지고 나오기 위해 투박하고 못생긴 흙덩이들을 선별하고, 쓰여진 일기에 혹시 타인에 대한

협담이나 비속어가 들어있진 않은 지를 검열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했다. 전시는 타인에게 보이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더 다듬고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을 복기하면서 ‘사람○ 바라보기 시리즈’의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본인의 감정이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본인 역시 내면적인 부분들을 밖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터가 존재한다고 느꼈다.

마치며

개체를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보는 것을 구상하고 실천했던 일은 어느새 ‘개체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내면은 과연 알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으로 귀결되었다. 이 질문은 역으로 본인이 본인의 속마음을 타인에게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의 개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떠한 개체도 자신의 모든 내면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인의 경우, 스스로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설령 안다고 해도 겉으로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 저마다 포기할 수 없는, 감출 수밖에 없는, 그들 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본인의 작업이 가지고 있는 접근방식이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잠시 나눠보고, 사진을 찍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올라온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보고 드로잉 하는 것처럼 ‘개체의 내면을 탐구한다’는 매우 대단한 일에 비하면 너무 조심스럽고 작은 시도들이다.

이렇듯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본인은 왜 계속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기’를 시도하는 것일까. 또 왜 이렇게 소심한 접근방법을 고집하는 것일까.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개체를 ‘알지 못함’을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게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본인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소극적인 접근방법은 본인이 타인을 대할 때의 태도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본인

은 이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확신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멀리서 바라보고 접근해나가는 것이 본인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접근법일 것이다. 때문에 대상을 바라보고 조금씩 접근해나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작업으로 이미지화하는 일은 본인에게 늘 흥미로운 일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Three Factors inherent in ‘Looking at’>

Ki-ju, Kim

Departmen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a specific object, one must understand its social background, the story it contains, and the appearance it reveals as a surface. I took the term of factors for understanding the object. The social background in which the object was placed as an "external factor ", the story it contained as "inner", and the surface which hide its ‘inner’ is a "shield". The study begins with recognizing these three factors and ‘seeing the objects’.

Initially, the work was carried out as a process to recognize these three factors. By ‘How to look at rocks (2016)’, I wanted to focus on the story that rocks contain. And I recognized that ‘external factors’ affect the individual and blurred them in ‘Seeing from a distance(2016)’ and ‘ Looking at geometric objects.(2017)’. These tasks helped me identify the three elements that make up the object. And then applied it to " looking at "

I chose people as objects of ‘ looking at’. And I tried to stack up the pictures to image the three elements I talked about earlier. Stacking up the same objects from various

backgrounds has blurred the social environment in which they live and only made their appearance distinct. Looking at the object, I realized that my work began with the question, "Can anyone know 'the whole inner' of the object?"

The question could be answered by considering the reverse question, "Can I fully understand my inner and expose it to others?". Due to this reason, I started 'Road View Drawing (2017)' and '8.88 m² (2018)'. As I carried out these two tasks, I was able to concentrate on my inner story and how I could reveal them.

The bottom line is that it is next to impossible to fully understand one's 'the whole inner'. It is difficult for an individual to fully understand his or her inner self, and even if he or she knows it completely, it cannot be revealed. It does not satisfy the three factors mentioned earlier, a complete understanding of a particular object is nearly impossibility. However, this does not affect my continuous view of objects. Rather, it will be a driving force that can be viewed with more interest.

Keywords : Objects, Looking at, External factor, Inner, Shield

Student number : 2016-21328

작품 목록

<작품1> <돌을 바라보는 방법>, 석고, 돌, 야광안료, 가변설치, 2016

<작품2> <멀리서 보아야 하는 것>, 책, 가변설치, 2016

<작품3-1> <교차된 빨간 원기둥>, 종이에 인화, 841*594(mm), 2017

<작품3-2> <위가 넓은 검은 원기둥>, 종이에 인화, 594*841(mm), 2017

<작품4-1> <사람A>, 종이에 인화 후 디아섹, 594*841(mm), 2017

<작품4-2> <사람B>, 종이에 인화 후 디아섹, 594*841(mm), 2017

<작품4-3> <사람C>, 종이에 인화 후 디아섹, 841*594(mm), 2017

<작품4-4> <사람D>, 종이에 인화 후 디아섹, 841*594(mm), 2017

<작품5> <로드뷰 드로잉>, 단 채널 영상, 스케치북에 드로잉, 가변설치, 2018

<작품6> <8.88m>, 나무합판, 각목, 2400*3700*2440(mm), 2018

<작품7> <'공간 미니어쳐', '흙 주무르기 루틴', '일상 기록'>, 가변설치, 2018

참고 문헌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김형효, 2008, 인간사랑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박정자, 1991, 상명여자대학교 출판부

<라캉 읽기> 손 호머, 김서영 역, 2014, 은행나무